

고통 받는 이웃 보살피는 것이 봉축의 참 뜻

극락왕생 · 무사귀환 燈 밝히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마야부인 태중에서 나와 일곱 걸음을 걸음이여, 자비스러운 광명(慈光)이 천하에 가득함이다.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天上天下 唯我獨尊)”하시니, 과연 홀로 높고 홀로 귀함이라. 비록 그러하나, 다리 아래를 보소서(看脚下).

사부대중이여, 다 같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마음마다 축복의 등, 나눔의 등, 통일의 등을 환하게 밝혀 부처님께서 오심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오신날은 기쁜 날입니다. 어둠의 무명이 가득한 사바세계에 영원한 상서로운 빛이 처음 깃든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진리의 세계, 적멸의 세계에서 만중생에게 영원한 자유와 위없는 행복의 바른 길을 밝혀주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몸을 나누어 이 땅에 출현하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하시어 생사가 없으셨지만, 어찌하여 굳이 중생의 옷을 입고 생사를 보이시고 성불의 길을 다시금 걸으셨습니까?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중생의 몸을 의지해, 바른 신심으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의 길을 증득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왕자로 태어나 출가하신 것은, 세상이 어떠한 부귀공명이라 할지라도 한낱 물거품이요, 아침이슬과 같으니, 생노병사를 요달하여 자기사(自己事)를 찾는 것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온갖 고행과 선정(禪定)을 초월하여 대도(大道)를 이루신 것은, 진리의 대도는 근기에 따른 방편이 따로 있지 아니하여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래의 국토에 이르는 것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래의 국토에 이르렀습니까? 바로 참선수행법이니, 일상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하고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챙기되, 하루에도 천천 만번 챙기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끔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과 같이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이 흘러가다보면 문득 사물을 보는 것도 있어버리고 소리를 듣는 것도 있어 버려서 한 달이고 일년이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사물을 보는 참나에 소리를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고 동시에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안락정토에 이르게 됩니다.

사부대중이여, 요즘 세상에 교훈삼아야 할 가르침이 있으니, “일일전허(一人傳虛)에 만인전실(萬人傳實)”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된 말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를 사실처럼 전하게 되는 것이니, 한 마디의 말을 듣고 전하는 데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세상을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애도합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우리의 가족이요, 나의 한 몸과 같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다 같이 극락왕생 발원의 등과 무사귀환의 등을 밝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급일 부처님오심을 봉축함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모든 희생자들이 영원한 진리의 낙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산승도 진리의 등불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사부대중과 모든 영혼들께서는 잘 간직하소서.

일파유조수부득(一拂柳條收不得)하여
화풍탐재옥난간(和風捲在玉欄干)이로다
한 주먹의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하여
봄바람에 옥난간 벽에다 걸어 둠이로다.

말법 세상에 정법을 세웁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두 손 모아 받들어 찬탄합니다.

사바의 무여(無餘) 중생을 제도하려고 무수겁 세우 온 원력에 따라 법신(法身)에서 화신을 나타내시니 이 땅에 환희의 물결이 넘쳐흐릅니다.

부처님은 거래금(去來今)이 없으신 몸이시라 삼계의 도사(導師)로서 자비무량 베푸십니다. 여전히 탐진치(貪瞋癡)의 물결이 휘몰아쳐서 세월호 여객선이 전복(顛覆)하여 목숨을 잃은 이들, 슬픔에 잠긴 가족 친지 등, 여기 고통이 가득하니 못 생명을 보살피는 부처님의 자수(慈手)를 기원합니다.

법계의 실상(實相)은 본래 일여(一如)하여서 자타(自他)가 상보(相補)하여 공존(共存)을 이루고 화해의 정토세계(淨土世界)가 여기 항상 하여도 과학물질의 혜택은 미중유(未曾有)로 누리면서 가정 정치, 종교에서 마저 분별의 갈등이 깊어가니 우리 모두 무명망상(無明妄想)을 참회합니다. 말법(末法) 세상에 심인정법(心印正法)이 우뚝 서서 진언염송의 묘법(眞言妙法)이 심전(心田)을 정화하면 세사(世事)의 환란이 다시 회망의 동력으로 승화하고 진각성존의 무진서원(無盡誓願)이 세간에 두루 하여 빈부와 세대(世代), 이념과 남북이 화음과음을 이루는 부처님의 밀엄국토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그 누구도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한 뜻을 걸음 심중(心中)에 새겨서 초목군생이 제 향기를 품어 내고 중생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도록 일심(一心)으로 발원하여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의 원력에 귀명합시다.

내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웠으며, 보이지 않던 것을 바로 보게 하였으며, 치우친 생각을 바르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였으며, 한 뿌리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부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국민을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힘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며,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나 바른 실천을 몰라주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밝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제

라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일 할 때는 작은 일이라도 품앗이를 하는 나라, 짝이 생기면 문화예술로 쉬는 나라, 맛있는 음식은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이웃 사촌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을 모두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여유로운 나라, 기회가 되는데로 이웃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객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영가분들이 어둠과 혼란에서 어서 나오시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부디 시간이 더디더라도 기운을 내시고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햇볕이 원만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청정심과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봄바람에 날리는 꽃 내음이 가득한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만불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봉축합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우리는 연등을 밝힙니다. 연등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무명(無明)의 세계를 영원한 진리의 광명으로 밝혀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등을 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온 세상이 밝고 향기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만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서 “일체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 개개의 존재가 모두 존귀하며 모든 생명들이 차별 없는 절대 평등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추구해 온 무한한 물질의 가치는 생명경시의 풍조로 이어지고 전통적 가치관의 훼손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 계층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일체 생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 말씀하시고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중생구제의 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비록 자라는 곳이 진흙밭이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는 비원(悲願)의 가르침처럼 청정한 마음과 차별 없는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만중생이 찬탄하고 환희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금 참담한 마음을 가누며 연등을 밝히고,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천(天人)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지혜로 상생하고 자비로 화합 하는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생계의 대립과 갈등은 끝이 없어서 지구촌 곳곳에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경제 불황도 여전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었으니 육도윤회의 아픔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깊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손에 손을 등불 밝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비추어야 합니다. 자성이 청정하여 중생이 곧 부처이며, 법계가 무궁하여 극락과 중생계가 따로 없음을 깨달아 현생정토 구현의 큰 서원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마음에 연등하나 밝히는 공덕으로 사해인류가 평온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웃음꽃 피어날 것이니 부귀와 빈천의 벽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중생심에 등불 밝혀 부처의 눈 뜨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억겁보살이요 곁에 있는 사람은 삼세불의 현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위로를 보냅니다.



불교의 자주정신으로 육행을 실천하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불자님들 가정에 복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진리요, 자비와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자, 부처임을 자주정신의 깨달음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자주정신으로 단지, 삼독을 단제하겠다는 수동적인 마음보다는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부처의 본심으로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나누시길.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쁜 마음으로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절제할 줄 알며, 하심을 통해 인욕의 지혜를 배우고, 매사 회심을 다하는 열과 성의를 가지며, 바른 사유로 가지런한 마음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줄 아는 인과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 시대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도 이 인과 이치를 깨달음 지혜로 통찰해 마음속 깊은 어리석음을 밝히도록 참회합시다. 그래서 불교의 자주정신을 일상생활 속에 육행 실천으로 옮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상을 불국토로 건설하겠다는 대 서원을 세워봅시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과 아직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유가족분들을 위해, 이 험거운 시간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불자님들 모두가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 무사행환과 희생자분들 모두가 극락왕생생활하시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더불어 유가족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마음 밭 갈아 중생구제 열매 맺자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호시절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지구촌의 명절이요 온 우주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외지셨다는 초성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는 말씀은 내가 우주삼라만상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온 세상 만중생의 고통을 모두 견져내리라.’는 선언은 우주 삼라만상을 집어삼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걸식하는 부처님을 보고 농사짓는 바라문이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나도 마음 밭을 갈고 보리종자를 씨 뿌린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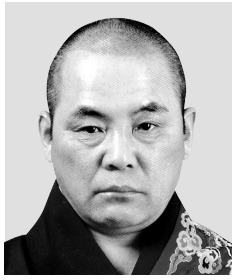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이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선남 선녀의 마음입니다. 보리종자를 씨뿌리기 위해 마음 밭을 갈고 탐진치 삼독 잡초를 뽑아 작물을 키우고 중생구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겨자씨 속에 온 우주를 머금었다는 말은 겨자씨 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들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70억 인구 가운데 들어있는 이 하찮은 나, 즉 겨자씨가 우주 만물 만상을 집어삼켰다는 말이기도 하고, 좁고도 좁아 겨자씨 한 톨도 허용하지 못하는 중생심이 우주를 허용하고 남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넉넉한 수행자로 선 남산선녀로 거듭나길 바라며 온 세상 온 우주가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무고안온한 극락세계 왕생을 발원하며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있던 기쁨으로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여래청정묘법신(如來 淨妙法身)이 여자연구축상사(自然具足恒沙德)이라. 주변법계무궁진(周邊法界無窮盡)하사 불생불멸무거래(不生不滅無去來)하네.

여래의 청정한 진리의 몸이여, 바닷가 모래 같은 무수한 공덕 빛나고 빛나 세상에 가득하니 오고 감이 없이 우리 곁에 늘 계시네.

채워짐은 비어있음에서 비롯되니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여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릴 때 본래 있던 기쁨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명이 귀하고 사람이 귀롭습니다. 모든 어른은 내 부모요, 모든 어린이는 나의 자녀이니 지혜의 등불로 사바의 어둠을 밝히고 자비로운 불심으로 이따다온 연꽃을 피워내소서.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인천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맑은 소리로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지혜로서 슬기롭게 생활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절대적 진리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인과 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인연은 내가 과거에, 전생에, 그리고 현생에 지어 온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원인의 씨앗이 되어 때맞춰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인과는 누가 인연 지어 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쉽게 내 뺏겼던 말 한마디, 머리 굴려 쥐어 짜낸 생각 하나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하나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숨겨짐이 없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업을 다 없애고 앞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겠다고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시키고, 삼밀관행 진언염송정진으로 즉신성불 해탈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이 인연법과 인과법을 깨쳐서 일체 모든 경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업을 지심으로 참회하여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